

# 無基本標目原則： 日本目錄規則의 歷史的 背景

Takawashi, Shihota, Oshiro 共著  
서 상 식 譯  
〈평화방송자료실 사서〉

## 抄 錄

單位카드(Unit Card)를 복사하기가 쉬워지고 複數標目目錄에 있어서 각 標目이 利用者에게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경우에는, 基本標目原則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 글은 日本內에서 無基本標目原則의 역사적 발전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書名標目은 동양의 전통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日本의 편목 담당자들은 새로운 日本目錄規則이 편찬된 1977년까지 英美目錄規則(AACR)과 파리原則의 영향하에서 기본표목원칙에 입각한 규칙을 사용해 왔다. 無基本標目原則이 채택된 日本目錄規則 1977년판(NCR 1977)의 “記述單位카드 시스템”은 컴퓨터목록 시대에 필요로 되는 것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 글은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9(4) 1989, pp.67~77에 실린 Tadayoshi Takawashi, Tsutomu Shihota, Zensei Oshiro 共著인 “The No-Main-Entry Principle :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Nippon Cataloging Rules”를 번역한 것으로, 1986년 8월 일본의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IFLA의 한 分科討議에 제출되었던 論文에 약간의 修訂을 가한 것이다. <譯者註>

編目에 있어서 基本標目的 원칙은 도서관이 單一標目목록을 가지고 있을 때와 完全標目 및 簡略標目 카드로 구성된 複數標目목록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는 유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單位카드를 복사하는 것이 쉬워지고, 複數標目목록에 있어서 각 標目이 이용자에게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되었을 때, 일부 司書들은 이러한 基本標目原則에 반대론을 펴고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日本에서 몇몇 司書들은 “記述獨立시스템(DIS : Description-Independent System)”이라고 불리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후에 “記述單位카드 시스템(DUCS : Description Unit-Card System)”으로 바뀌었다. 서양에서는 Osborn이 1961년 그의 연구에서 基本標目 선정에 있어서의 편목 담당자들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으며, 1967년에는 Friedman과

·Jeffreys가 같은 문제에 관해 토의하고 “선택적 標目(alternative entry)”의 개념을 주장했다. 1972년 Daily와 1973년 Handy는 기본적으로 “선택적 標目”과 같은 의미의 “書名單位標目(title unit entry)”을 주장했다.

無基本標目原則이 NCR1977에 채택된 반면에, AACRII에서는 그저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 論文에서는 日本에서의 無基本標目原則의 역사적 발전에 관해 추적해 보고, 그것이 NCR1977에 어떻게 채택되었는가에 관해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결국 우리는 컴퓨터 목록시대에 無基本標目原則이 갖는 가치에 관해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記述獨立시스템

日本目錄規則 초판은 1943년 青年司書聯盟에 의해 편찬출판되었다. 그렇지만 이 규칙은 NCR1942라고 불리어진다. 1908년의 英美目錄規則을 기초로 한 NCR1942는 日本에서 처음으로 基本標目原則을 채택했다. 그때까지 書名基本標目시스템은 日本에서 거의 모든 목록규칙에 사용되어 왔었다. 이것은 日本人들의 도서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日本人들은 著作을 저자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1932년 소위 “基本標目論爭”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결국 著者基本標目시스템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결말이 났다.

제2차 세계대전후 日本圖書館協會는 基本標目原則을 유지한 NCR1952를 편찬출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司書들이 基本標目的 장점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주창했는데, 이것은 “記述獨立시스템”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의 주요 주창자는 “標目과 記述의 독립”이란 제목의 論文에서 基本標目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한 Koichi Mori였다. 그의 견해는 후에 오사카 지역의 다른 司書들에게서 지지를 받고, DIS理論은 점진적으로 확립되었다. Mori에 따르면 DIS는 單位카드를 복사함으로써 복수표목目錄을 유지하고 있는 中小規模 도서관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었다. 그는 이전과 같은 量의 書誌 情報를 가진 저자·서명·주제명카드

를 포함하는 目錄에 基本標目を 기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日本の 목록에서 基本標目原則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基本標目은 저자부출著錄의 경우에 있어서, 두번째 단계에 기재하는 요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서양의 目錄에 있어서도 같다. (2) 日本 圖書에서 표목과 기술은 항상 漢字(日本語漢字)를 사용해 왔다. 著錄의 작성을 위해서는 標目위에 순차적으로 假名(日本音節文字)를 써야만 한다(예 1A). 바꾸어 말하면 “2중구조”형식으로 漢字와 假名(혹은 로마자)가 모두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저자부출표목은 漢字로 된 基本標目위에 쓰여진 假名形態로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는 기술부의 漢字에 빨간색 밑줄을 긋는다. 日本人들은 單位카드 위에 “2중구조”의 부출표목을 넣기 위해서는 항상 공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基本標目카드의 경우 假名과 漢字가 항상 서로 대응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補助著錄은 이용자들에게 독특한 것으로 보였다(예 1B).

(예 1A) 著者基本標目카드

Suzuki, Daisetsu

鈴木大拙

禪と日本文化 北川桃雄譯

東京 岩波書店 1940

196p 19cm(岩波新書 75)

1. 禪 2. Kitagawa, Momoo
3. zen to Nihon bunka

Romanization of main heading

Main-heading(in kanji)

Title : zen to Nihon bunka

(Transtalion of “zen Buddhism and its influence on Japanese culture”)

1. Subject heading 2. Translator
3. Title

(예 1B) 著者副出標目카드

Kitagawa, Momoo

Suzuki, Daisetsu

鈴木大拙

禪と日本文化 北川桃雄譯

東京 岩波書店 1940

196p 19cm(岩波新書 75)

1. 禪 2. Kitagawa, Momoo

3. zen to Nihon bunka

Translator(added entry)

Romanization of main heading

Main heading(in kanji)

Translator(underlined in red)

(예 2) DIS카드

禪と日本文化 鈴木大拙著 北川桃雄譯

東京 岩波書店 1940

196p 19cm(岩波新書 75)

1. Zen to Nihon bunka

2. Suzuki, Daisetsu

3. Kitagawa, Momoo

4. 禪

5. 188(NDC)

DIS단위카드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단위카드의 基本標目이 없이 기술과 標目指示事項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2). 標目指示事項에는 필요한 만큼의 표목이 기재될 수 있다. 단위카드를 복사하면 著者名標目은 단위카드 윗 공간에 타자를 쳐서 著者目錄에 배열하고, 書名標目과 主題名標目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書名目錄과 主題名目錄에 배열하면 된다. 그러한 分割目錄에 있어서 기본표목의 개념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

(2) hanging indentation을 사용하는 書名基本標目 체제는 저자명기본표목 체제와는 다르다. DIS에서는 基本標目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위카드를

위한 단 하나의 표준화된 체제만이 있다.

(3) 이 방법은 또한 기술에 있어서 통일된 형식이 유지되도록 해준다. 게다가 모든 標目은 같은 indentation으로 통일화되고 유형화될 수 있다.

DIS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基本著錄形式을 따를 때는 基本標目を 著者名으로 하는가 혹은 書名으로 하는가에 따라 기술체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目錄데이터를 작성할 때 기술부터 시작할 수가 없다. DIS單位카드는 標目과는 상관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며 理論的인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2) Osborn의 論文에 명확히 나타난 바와 같이 더이상 基本標目的 선정에 따르는 고충과 오류 등에 관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DIS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圖書에 저자기호나 도서번호를 부여할 때 基本標目이 계속 필요하지만, DIS에는 저자기호의 典據에 대한 지시가 없다.

(2) DIS는 어떤 書誌記錄에 대하여 基本標目を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 단일표목目錄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Mori가 언급한 바와 같이, 基本標目的 개념은 그러한 단일표목目錄에 타당한 유일한 것이라고 전제한다. 國家綜合目錄(NUC: National Union Catalog)과 같은 종합목록에는 항상 단일표목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컴퓨터목록 시대에는 하드카피 형태의 종합목록에 까지도 複數標目を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WLN(Western Library Network)에 의해 구성된 COM종합목록은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저자명, 서명, 주제명, 索引과 함께 등록번호에 의해 배열되어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基本標目的 개념도 보이지 않는다. 의회도서관이 발행하는 "The National Union Catalog"는 현재 Microfiche에 레지스터 형태로 들어있다.

도서번호를 주는 데 있어서는 標目指示事項의 처음에 기록된 저자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DIS는 그것을 지지한 사람들과 基本標目原則을

지지한 사람들간에 論爭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NCR1965는 파리原則에 입각한 기본표목원칙을 채택했다. 1970년대까지 日本도서관협회 目錄分科委員會는 새로운 日本目錄規則의 편찬에 있어서 DIS의 채택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無基本標目原則에 입각한 目錄規則의 作成

○草案

1970년 日本도서관협회는 資料組織에 관한 제1차 全國會議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日本도서관협회 目錄分科委員會는 基本標目시스템과 DIS의 타협안인 無標目單位카드 시스템(NHUCS: No-Heading Unit Card System)을 제안했다. NHUCS에 따르면 書誌의 記述事項의 기술부는 標目과 별도로 이루어지며 모든 標目은 標目指示事項에 기록된다. 여기에는 基本標目도 포함되는데 번호없이 가장 앞에 적는다(예 3). 단지 몇 명의 참가자만이 이 제안에 반대했는데, 반대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시스템인 NHUCS에 基本標目原則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했다.

(예 3) NHUCS카드

禪と日本文化 鈴木大拙著 北川桃雄譯  
東京 岩波書店 1940  
196p 19cm(岩波新書 75)

- Suzuki, Daisetsu 1. Kitagawa, Momoo  
2. zen to Nihon bunka 3. 禪  
4. 188(NDC)

간단히 말해, 그 제안은 基本標目과 DIS 양쪽 모두를 적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日本司書協會의 자료조직연구모임은 1969년 이래 無基本標目原則에 입각한 目錄規則의 草案에 관해 작업을 해 왔었다. 그것은 1974년 “圖書館目錄規則(草案)”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편찬된 것은 아니지만, 이 草案은 세계에서 최초로 無基本標目原則을 채택한 目錄規則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후에

NCR1977의 작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이 草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그것은 無基本標目原則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표목지시사항에도 基本標目を 기입하지 않는다.

(2) 그것은 본래 사전체목록이 아닌 分割目錄의 사용을 위해 고안되었다.

(3) 그것은 記述單位로서의 物理的 單位로 간주된다.

日本の 학교도서관과 中小規模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은 書名目錄과 書架目錄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도서관들은 NCR1965의 파리原則에 따른 저자명기 본표목원칙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부분적으로 日本의 경제발전과 司書들의 노력 때문에, 1960년대에 공공도서관들의 연간 受書量은 급격히 증가했다. 日本 의회도서관과 國立圖書館의 인쇄카드가 폭넓게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目錄 작성자들은 NCR1965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司書들은 基本標目を 선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앞에 언급한 Mori의 論文에 의하면 그의 無基本標目原則理論을 지지한 자료조직연구모임의 회원들에 의해 1950년대와 60년대에 수많은 論文들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그의 理論은 많은 공공도서관의 目錄 작성자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冊을 일시에 입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록 작성자들은 書誌의인 것으로서의 物理的 單位를 유지하고 있는 그 “草案”을 환영했다.

○1977年版

資料組織에 관한 몇차례의 전국회의 후에 日本도서관협회 目錄分科委員會는 無基本標目原則에 입각한 NCR1977을 편찬출판했다. 標目方式은 “NHUCS”에서 기술단위카드 시스템(DUCS: Description Unit-Card System)으로 바뀌었는데, DUCS는 標目指示事項에 조차도 기본표목이 없다(예 4). 그것의 체제는 “圖書館目錄規則(草案)”과

매우 유사한데, 양시스템은 거의 같은 이론적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 4) DUCS카드

禪と日本文化 鈴木大拙著 北川桃雄譯  
東京 岩波書店 1940  
196p 19cm(岩波新書 75)

1. zen to Nihon bunka a1. Suzuki, Daisetsu a2.  
Kitagawa, Momoo s1. 禪 ①188(NDC)

日本機械可讀形目録(JAPANMARC)과 日本國家書誌(Japan National Bibliography)를 사용हे은 이후로 NCR1977은 日本內에서 표준목록규칙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日本도서관협회 目録分科委員會는 표준판을 편찬하기 위해 예비판인 이 규칙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1984년 그 위원회는 예비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非圖書資料의 규칙편찬을 거의 마쳤다. 그동안 委員會의 회원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새로운 위원들은 단지 규칙을 추가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규칙을 완전히 재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ISBD와 UNIMARC에 완전히 조화시킬 수 있는 規則을 편찬하려고 노력했다.

NCR1977이 ISBD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序文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ISBD句讀法은 NCR1977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目録分科委員會는 1984년에 표준판의 초판을 출판했고, 85년에는 2판을 86년에는 3판을 출판했다. 그러한 案(無基本標目原則에 기초한 規則들)에서 그들은 저작을 物理的인 것이 아닌 기술의 단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NCR1977이 물리적 단위를 기술을 위한 기초로써 간주한 이래 나타난 또 다른 새로운 특징이다. 資料組織研究모임은 목록규칙이 도서관 장서의 書誌記錄을 위해 일차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특징에 異議를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目録時代의 基本標目

온·라인 목록에 있어서 基本標目과 副出標目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 그들은 모두 같은 接近點이다. 또한, 기술부에서의 키·워드도 接近點이 될 수 있다. 더우기 이러한 것들은 Boolean論理를 사용하여 결합될 수도 있다. 따라서 情報에 대한 接近은 비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정확한 저자명이나 書名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발달된 典據統制 시스템에서는 어떤 접근점이든(그것이 標目이든 아니든간에) 情報에 대한 똑같은 접근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標目과 참조표시 사이의 차이점은 이용자에게 무의미한 것이다.

AACRII에는 “書誌記錄의 기계적 처리에 있어 그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記述”과 “접근점”을 분리하고 앞 부분에 “記述”을 위치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AACRII에는 임의로 “선택표목”原則을 남겨두고 基本標目原則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온라인 목록시대의 규칙으로서는 실패한 듯하다. 몇몇 온·라인 목록이 출현하기는 했지만 일부에서는 현행 目録의 대부분이 아직 카드目録으로 되어 있고 AACRII가 그러한 目録에 유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AACRII를 고집할 수도 있다. 우리가 카드목록을 위한 규칙인 日本目録規則의 역사적 발전에 관해 살펴본 것처럼 基本標目原則은 카드목록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은 單位카드를 쉽게 복사할 수 있는 시대이다. 편목의 역사를 조사한 strout는 “目録規則은 그 시대의 관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달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수단인 것이다”고 말했으며 Gorman은 “발달된 機械 시스템에서는 基本標目を 없애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基本標目の 권위가 기계 시스템에 기초하는 미래의 目録規則에 존속되리라 하는 가망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目録 데이터의 국제적인 교환의 관점에서 보면 “無基本標目”은 基本標目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것 같다. 그 이유는 基本標目の 선정에 있어서 생길수 있는 오류·모순 등과 반대로 無基本標目は 데이터의 요소들이 보다 명백하고 쉽게 인식되기 때문에 커다란 規則性을 갖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世界書誌統整(UBC: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프로그램의 목적 중의 하나는 각국의 MARC를 거의 修訂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日本은 출판분야가 발전한 國家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無基本標目的 기초위에 入力된 “JAPAN MARC”는 다른 國家들을 위해 대단히

잠재적인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MARC들이 基本標目的 원칙에 부딪친다면 JAPAN MARC의 사용은 제한될 것이다.

우리는 無基本標目原則과 JAPAN MARC가 우리의 공동목표인 世界書誌統整의 달성을 위해 폭넓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 原 稿 募 集

<도서관문화>誌는 7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곳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전화 : 535-4868·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도서관문화”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圖書館文化 편집실